



5면

전주 조광대 토성, 전북 문화유산 됐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음 5월 28일) 제3766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바이오산업 해외 진출 본격화

도, BIO USA 2025 참가
CIC 내 전북 바이오 기업
미국 시장 진출 거점 마련
메이요클리닉 본원 찾아
창업기업과 투자방향 체결
바이오헬스 위상 제고 기여



전북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김관영 도지사 일행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세계적 의료기관 메이요클리닉(Mayo Clinic)을 방문해 의료기구를 살펴보고 있다.

전북의 바이오 산업이 미국 현지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며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 최대 바이오 산업 박람회 'BIO USA 2025'에 참가하고, 세계적 의료기관인 메이요클리닉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북 바이오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BIO USA 2025 전시장을 방문해 도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력을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BIO USA 2025'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보스턴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1,500개 기업과 2만 명 이상의 바이오 전문가들이 참가해 신약 개발, 기술 이전, AI 기반 정밀의료 등의 분야를 논의하는 세계적 규모의 행사다. 특히 올해는 AI 기반 신약개발과 정밀의료 기술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북을 대표하는 6개 바이오 기업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메디코사이오텍 △메디앤리서치 △바이엘터 △바스젠바이오 △플라스바이오 △바이오랩 등이 각각 자사의 핵심 기술을 소개하며 글로벌 제약사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들 기업은 거미실크단백

질, 방사선 저항 미생물, AI 기반 임상 분석, 미세점류를 활용한 화상 치료 등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19일(현지시간)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CIC 내에 전북 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CIC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IR 행사와 리셉션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미국 내 한인 전문가 단체인 KASBP(재미한인 제약인협회), KAPAL(한미생명과학인협회) 등과 연계한 기술 세미나 및 심포지엄도 추진할 계획이다.

같은 날 김관영 지사는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세계적 의료기관 메이요클리닉 본원을 방문해 신경공학·정밀수술 연구소 및 사내 창업기업 '내비네틱스(NAVNETICS)'와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복합재 기반 뇌정위 고정장치 공동개발 △메이요클리닉 연계 한국 법인 설립 △의사과학자 육성 및 인력 교류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 만남은 지난 4월 전북자치도와 메이요클리닉 간의 업무협약 체결과, 5월 캔달 리 메이요클리닉 신경공학연구소와의 전북 방문에 이은 후속 조치

로, 실질적 연구협력과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세계적 의료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지체단체 차원에서 실현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전북 바이오헬스 산업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전북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세계적 의료기관인 메이요클리닉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전북을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 내장산 우화정 특설무대에서 '조선왕조실록 이안 기념행사'가 열린 22일,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지켜낸 정읍 두 선비의 헌신

〈안의·손홍록〉

정읍시, 국가유산지킴이의 날 맞아

내장산 우화정서 이안 기념행사 개최

임진왜란 속에서도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정읍의 두 선비 안의와 손홍록의 숭고한 헌신이 433년이 오늘날 내장산 자락에서 되살아났다.

시는 22일, 국가유산지킴이의 날을 맞아 내장산 우화정 특설무대에서 '조선왕조실록 이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정읍의 역사와, 관의 지원 없이 사재를 털어 문화유산을 지켜낸 두 선비의 결단과 민간의 숭고한 헌신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기념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400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석했다. 클라망상불의 연주와 청운사 향원스님의 성악 공연이 어우러지며 문화유산의 의미를 더욱 깊게 전달했다.

기념식 후에는 실록과 어진을 품고 내장산 용굴로 향했던 433년 전 그날을 되살리는 이안 재현 행렬이 이어졌다. 시민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이 행렬은 실록을 품에 안고 향한 산길을 걸었던 선비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몸

소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확대해 연극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했다. 특히 안의·손홍록 선생의 업적을 조명하는 무대는 참여자들의 이해도와 공감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학수 시장은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내장산에서 이런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안의·손홍록 두 선비의 이름을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조선왕조실록 전주 사고본은 임진왜란 발발 직후인 1592년 6월 22일, 안의와 손홍록 두 선비가 마을 주민 20여 명과 함께 내장산 용굴 암으로 옮겨 화를 피해 보존했다. 이후 은적암, 비례암 등으로 이안하며 1년간 실록을 온전히 지켜낸 이들의 헌신은 오늘날까지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2018년,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6월 22일을 '국가유산지킴이의 날'로 지정했다. 시는 이 정신을 계승해 매년 조선왕조실록 이안 기념행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 시군 부단체장 내정자 명단 발표

최재용 익산부시장 등 총 4명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시군 부단체장 내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내달 1일 부임하는 이번 시군 부단체장 내정자는 총 4명이다. /이만호 기자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익산 부시장,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남원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마찬가지로 이정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장수부군수, 조광희 기업유치과장은 순창부군수로 자리를 옮긴다. /이만호 기자



〈익산부시장〉 최재용



〈남원부시장〉 이성호



〈장수부군수〉 이정우



〈순창부군수〉 조광희



한계를 넘어
장수군에서!
JANGSU TRAIL RACE

70K

38K-J

38K-P

20K

5K

4K-VT

